

濟州島와 沖繩의 慣習法^{*}

— 門中을 中心으로 —

徐 庚 林

目 次

- I. 序
- II. 오끼나와의 人文·自然環境
- III. 오끼나와 門中の 社會的 位相
- IV. 濟州島와 오끼나와 門中の 比較
- V. 結語

I. 序

人類는 種族保存의 本能을 바탕으로 하여, 國家生活 이전부터 男女의 性的 結合(婚姻)과 血緣的 集團(親族的 集團)을 통하여 存續·發展하여 왔다. 婚姻의 形態나 親族集團의 모습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변천되고 있다. 그 변천의 要因으로서는 社會經濟機構의 변천과 社會思想의 변천 등을 들 수 있다.

親族集團이 生産의 主體가 되었던 시대에는 「家」 또는 「家族」이라 불리우는 큰 집단이 中心이 되었다. 이러한 集團에서는 家長이 強力한 權限을 가지고 家族員을 支配·保護하였고, 集團의 結束은 家長의 權威로 유지되었다.

* 본 연구는 1989년도 대학자체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社會의 經濟機構가 資本主義經濟로 옮겨가면, 대부분의 親族的 集團은 生産의 主體로서의 機能을 잃게 마련이다. 家族員이 賃金勞動者가 되면서 親族集團內에서의 地位도 상승하게 되는 반면에 家長의 統制權限은 弱화된 다. 결국 親族的 集團은 分散되어 小家族 내지 核家族으로 변하는 단계에 이른다.

현대의 文明諸國은 대체로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核家族化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으나, 그 樣相은 일정하다고 할 수 없다. 경제사정의 차이에 따라 한 나라 속에서도 大家族(農家家族)과 小家族(勤勞者家族)을 兩極으로 하여, 그 중간에 많은 種別이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家族的·親族的 集團의 推移 속에서 婚姻形態나 親族集團의 形態 등이 그때 그때의 慣習法 내지 社會規範에 의하여 규제되어 왔다. 또 이러한 法은 非打算의·地方的·民族的 색채가 농후한 法으로서, 아직도 社會現實 속에서 삶의 秩序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本稿는 제주도와 오끼나와 사이의 親族集團에 대한 慣習法을 비교하고자 한다. 그런데, 오끼나와의 親族集團, 특히 「門中」에 관한 慣習法은 日本에서는 특이한 것으로서 보여지고 있는 반면에, 韓國과는 많은 類似點이 있다고 論證되고 있는 것이다. 오끼나와의 門中은 韓國의 門中制度의 전과 내지 도입을 통하여 促進 내지 形成되었다는 것이 그것이다.¹⁾ 그렇다면, 제주도와 오끼나와의 親族制度는 일단 韓國의 그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추정할 수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韓國의 親族集團을 척도로 하여 제주도와 오끼나와의 親族集團이 어떻게 다르며, 또 變容되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²⁾ 그리하여 양쪽을 비교함으로써 文化發展段階에 있어서 공통된 法的 定型을 찾아보고자 한다.

1) 崔在錫, “韓國의 親族集團과 琉球의 親族集團”, 《고대논문집 15집》, 1969, p.71.

2) 시간과 경비의 제약으로 문헌을 통한 평면적인 고찰에 그쳤다.

II. 오끼나와의 人文·自然環境

濟州島와 오끼나와(沖繩)는 다 같이 아득한 옛날부터 북대서양의 계절풍과 태풍에 씻겨온 섬들이다. 또 바다에서 표류하던 사람들의 漂着地이기도 하다. 오랜 세월에 걸쳐 獨立國으로 존재하여 왔던 적이 있었고, 현대에 와서는 피비릿내나는 살륙이 전개되어,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못한 곳들이다.

오끼나와는 일본 열도의 최남단에 위치한다. 북위 24도~28도, 동경 122도~133도에 걸친 태평양상의 광대한 海域에 활모양으로 흩뿌려져 있는 6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주도도 무인도까지 합치면 모두 60여개의 섬으로 되어 있다.

총면적은 2,254㎢로 제주도보다 조금 크다. 인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오끼나와戰에 의해 약 16萬의 人命이 손실되었으나, 지금은 약 130만명에 이르고 있다.

古代의 오끼나와인이 언제 어디에서 왔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오끼나와文化는 日本 本土에 비해 격차가 있다. 그 위치가 中國이나 韓國 등의 大陸文化에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되고 있었던 이유는 大陸文化를 수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만한 사회적·경제적 힘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으로 인식되고 있다.³⁾

政治的 支配者의 發生, 文字의 傳來와 使用, 또는 中央執權의 官僚國家의 成立이라는 측면에서 日本 本土와 비교할 때, 오끼나와는 數世紀에서 10世紀 정도로 뒤져있다고 한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정이 반대로 鹿兒島縣以北의 本土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文化나 習俗을 오끼나와社會에 保持시킨 결과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大田昌秀, “沖繩”, 《ブリタニカ國際大百科事典》3卷, p.322.

18世紀 초에 슈리(首里)나 나하(那霸) 등에 거주한 土族의 習俗에는 中國 文化의 影響이 濃厚하게 남아 있는데, 그 중에는 현재까지도 일반 서민의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예컨대 祖上崇拜, 豚肉料理의 愛好, 清明祭, 米壽祝 등은 그 좋은 예가 된다. 또 오끼나와社會의 特色의 하나는 親族體系, 祭祀·儀禮에 있다. 특히 民族文化, 그 중에서도 社會構造를 規定하는 基本的 因子로서의 親族의 重要性은 專門의인 研究者에 의해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다.

오끼나와의 宗教는 土着的인 것과 外來의 것이 있다. 이 土着的인 것은 固有宗教라고 하여 後者와 구별된다. 固有宗教의 基調는 애니미즘이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영적 존재에 대한 信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카미(カミ: 神)」 또는 「세지(セジ)」의 觀念이다. 카미는 生物, 無生物 모두에게 內在하는 초인간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 數는 거의 無限이며, 그 중에서도 祖靈, 우타미(御嶽)의 카미, 火의 神에 대한 신앙은 아직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을 가지고 있다.

오끼나와의 고유 종교에서 특이한 것은 祭祀가 모두 女性에 의해 거행된다는 것이다. 오끼나와의 원시사회에는 가장 예전부터 있었던 始祖의 家를 根所라고 하고 그 家의 男主人을 根人이라고 하며, 한편 根所의 主婦 또는 娘의 경우를 根神이라 불렀다. 이 根神과 「노로(祝女)」라고 하는 巫女가 部落의 祭祀를 주관하였다. 노로는⁴⁾ 새롭게 神이 天降한다는 의미의 「오아라오리(オアラオリ)」 儀式⁵⁾에 의하여 神靈을 받고 現人神으로서 특별한 자격이 부여되어 있었다. 그 외에 오고데(オコデ)라고 하는 女神職이 있다. 根神은 노로의 次席에 오르는 神女이며, 오고데는 門族의 巫女로서 根神의 補助的 役割을 담당한다. 또 유타(コタ)는 公式的인 神職은 아닌 샤만이지만, 그 宗教的 役割은 오늘날에 와서 노로보다 重要하다.

오끼나와의 村落은 農村이 大部分이고, 漁村이나 山村은 적다. 漁村은 半農半漁가 보통이며, 山村도 거의가 農業과 林業을 겸하고 있다. 이 村落들

4) 노로는 기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5) 노로의 就任式

은 17世紀를 경계로 그 이전에 성립한 「古村」과 그 이후에 設村된 「新村」으로 大別된다. 「古村」의 成立年代는 明確하지 않으나, 近世 封建體制의 確立과 함께 그 數나 이름이 명료하게 되었다. 현재의 村落 총수의 75%가 「古村」인데, 이러한 村인 경우에는 그 内部가 血緣的 共同體 同族集團으로 구성되어, 그 宗家の 根所를 中心으로 根神과 根人이 그 集團의 祭政을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村의 祭祀는 祖靈을 모시고 있는 성스런 場所 「모리(杜)」 또는 「御嶽」을 대상으로 거행하므로 古村에는 반드시 御嶽이 있다. 이 전통적인 古村에는 御嶽을 중심으로 共同體 意識이 강하게 육성되었고, 地割村落制 시행의 반작용으로 한층 강화되었다.

新村은 17세기 초엽에 薩摩藩이 침공하여 와서 生産基盤을 파악하기 위하여 급히 行政的 編成을 하고, 地割村落制를 시행함으로써 생긴 것이다. 이 때부터 村落의 移動이나 新設에 대하여는 王府의 許可가 필요하게 되었고, 地割體制가 강력히 추진 되었다.

Ⅲ. 오끼나와 門中の 社會的 位相

일반적으로 父系集團이라고 말해지는 오끼나와의 「門中」은 韓國의 門中과 漢字가 같아 한층 관심이 간다.

오끼나와의 門中에 관한 연구중에서 가장 최초로 나온 論文을 보면, 門中이란 '墓를 共同으로 하고, 血緣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 의해 構成되고 '門中構成員의 家督相續은 男系의 男子에 限한다'⁶⁾라고 고찰하고, 그 重要性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6) 渡邊萬壽太郎, "琉球の同族團について—門中の研究—, 《民族學研究》 6-4, 1940.

_____, "琉球の同族團の構成", 《神繩文化 叢說》, 1947. 中根千枝, "神繩・本土・中國・朝鮮の同族・門中の比較" 《神繩の民族學的研究》, 日本民族學會編, 1973. p.285에서 재인용.

‘琉球의 社會組織 중 同族集團組織이 특히 중요하며, 이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琉球의 社會組織의 實態를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모두 어느 쪽인가 하나의 同族團에 속하고, 그 속하는 同族團이 없는 者는 마치 無籍者처럼 생각될 정도이다. ……門中이 큰 것은 그 속하는 人口가 2千人 이상에 이르며, 超部落의으로 볼 때는 4, 5千에 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⁷⁾

이상의 論述에 한정하여 門中을, 父系 血緣集團으로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韓國의 門中에 필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후에 實態調査가 進行되면서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첫째, 首里를 중심으로 한 예전의 土族層에서 볼 수 있었던 門中은 一般의 村落人口에게 반드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끼나와 本島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는 門中이 실제로 기능하고 있지 않거나, 그 歷史가 아주 짧다고 하는 것이다.

둘째로 곳에 따라서 門中の 構成員이 한국이나 중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엄밀한 의미에서 父系血緣集團이 관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⁸⁾

오끼나와에서는 예전의 土族層에서 볼 수 있었던 門中の 형태는 일반 農民의 경우 同一門中이 散在하는 범위가 아주 좁고, 하나의 部落을 中心으로 하며, 隣接 部落에 미치는 정도로 좁다.

農民들의 門中の 歷史를 보면,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部落, 또는 인접하는 部落에 先祖가 왕래하였던 때로부터 시작하거나, 또는 그것이 아주 먼 옛날의 일로서 復元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억이나 구전으로 미칠 수 있는 범위에서 시작된다. 기껏해야 7~8世代 前쯤에서 시작한다고 하는 것처럼 門中の 祖는 系圖가 復元할 수 있는 정도까지 소급하여 설정되므로 그 歷史가 짧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그 祖가 어디에서 왔던가를 알고, 그 먼 땅에 있는 현재의 子孫들과 연결이 가능한 경우에도 ××에서 온 來歷에 그치고, ××의 현재의 자손과 함께 同一集團을 구성하고 있다는

7) 渡邊萬壽太郎, “琉球の同族團の構成”, 前掲書, pp.379~380.

8) 中根千枝, 前掲書, p.286.

意識은 없다. 또 同一門中の 成員이었다고 하더라도 2~3世代 이전에 그 地域社會에서 나가버린 경우에는 그 移住成員과 殘存成員의 관계는 소멸되는 경향이 강하다. 동일한 部落에 있는 경우에도 3,4世代를 지나면 각각 系統마다 뭉쳐지고 同一門中으로서의 意識은 없어져가는 것이 보통이다. 또 가까운 父系血緣의 成員이 移住 또는 死亡으로 同一部落에 없게 되는 경우에는 門中이라는 集團意識마저 거의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門中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경우에도 '門中은 반드시 같은 部落內에 總本家を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團結力은 같은 部落內에서는 강하고, 다른 部落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약하다.'⁹⁾고 지적하고 '門中の 범위는 一部落 내지 近接部落에 한정된다. 즉 門中の 범위는 지역적 制約을 받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¹⁰⁾고 기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오끼나와의 門中이라는 集團은 一般의 部落民들에게는 現實의인 生活의 場을 형성하는, 다시 말하면, 서로의 父系血緣關係가 設定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범위내에서 存在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一般적으로 門中이 部落 또는 隣接의 諸部落을 포함한 一定의 地域社會를 넘는 散在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機能은 一定의 地域社會의 범위에서 발휘된다고 할 수 있다.¹¹⁾

그러나 이렇게 한정된 父系認識이기는 하지만, 日本 本土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 즉 오끼나와에 있어서는 어떠한 農村, 邊境지방까지도 포함하여 사람들은 즉시 一定의 父系血緣에 연결되는 成員의 關係를 設定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門中이라는 개념이 일반화되고 있고, 地域에 관계없이 그 内部構造가 父系血緣의 指向으로 일관되고 있다는 共通性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本土에는 볼 수 없는 것이다. 本土에는 2, 3 世代를 거슬러 올라갈 정도만 되어도 養子가 되어 나가버리는 者의 자손이나 또 養子가 되어 들어오는 者의 父系에 따른 血緣關係는 거의 관심이 없고, 一族이라는 것은 항상 家의 繼承線을 더듬어 인식된다. 따라서 오끼나와에

9) 渡邊萬壽太郎, 前掲書, p. 380.

10) 渡邊萬壽太郎, 前掲書, p. 381.

11) 中根千枝, 前掲書, p. 287.

서 자주 볼 수 있는 父系血緣의 系圖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은 어렵고, 또 사람들은 이런 일에는 하등의 흥미나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런데, 오끼나와에는 中國이나 韓國에서 볼 수 있는 「同姓」으로 표현되는 父系血緣의 制度가 없다. 즉 未開·文明을 불문하고, 이른바 單系制를 가진 社會의 人口에서 볼 수 있는 父(母)에서 子에로라고 하는 自動的인 血緣集團歸屬(出生地나 移住에 관계없이 保全되는 會員資格)의 制度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制度가 있으면, 실제로 系圖를 더듬지 않더라도 서로 어느 集團에 속하는가 명료하게 될 수가 있다. 오끼나와의 門中은 父系血緣에 의한 自動的인 歸屬이라기보다는 系譜의 연결에 의해 가입한다고 하는 集團으로, 門中의 生命은 系譜(쓴 것이든 쓰지 않고 전한 것이든)의 設定에 있다고 할 수 있다.¹²⁾

요컨대, 오끼나와의 父系制度는 中國이나 韓國의 경우처럼 궁극적으로 一人의 祖上으로부터 파생한 子孫 全員을 포함한다는 想定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 그것이 全人口에 미치는 共通의 制度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漢人社會나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社會의 어떤 個人에게나 父系의 成員資格이 자동적으로 附隨하고 있음에 대하여, 오끼나와에서는 그 祖上 및 現存 個人의 社會生活의 場이 어떠한 것인가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門中意識의 強弱은 階層에 따라 또는 地方에 따라 아주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門中制度가 오끼나와郡島 전반에 걸쳐 예전의 士族層에서 볼 수 있는 것은 士族이 一般人에 대하여 特權的인 役割을 가진 身分層으로서 社會的으로 구별되어 있었다는 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門中制(父系制)는 社會的 身分과 결합하여 存在하였던 것이다.

上層의 制度나 慣習을 모방하려는 운동은 어느 社會에도 볼 수 있는데, 오끼나와에서의 一般 農民의 門中形成이 그 典型的인 例라 할 수 있다. 中根千枝氏가 조사한 今歸仁의 與那嶺部落에서¹³⁾ 家譜를 소장하고 있었던

12) 中根千枝, 前掲書, p.288.

13) 中根千枝, “門中と村落 —今歸仁村與那嶺”, 《東洋文化》第48·49 合併號, 1970.

것은 예전의 首里에서 이 곳으로 이주했다고 하는 舊土族의 山口門中뿐이었다. 다른 門中成員 중에는 2,3世代 이전부터 이 家譜를 모방하여 저마다의 系圖를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先祖는 거의 이 땅에 처음 來住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5~6代를 소급할 뿐이다. 또 어디에서 來住했는지 분명하지 못한 門中도 있는데, 그 경우에도 역시 6~7代를 소급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一般農民의 門中溯及度는 예전의 土族層에 비하여 극히 얇은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오끼나와의 門中은 1689년에 系圖座가 창설된 이후의 어느 시기에 나타난 호칭이며, 公用語로서가 아니라 土族의 一門內의 小分枝의 호칭으로서 사용하던 것이 그 후에 有識層이나 名門에 전파되어 갔던 것이다.¹⁴⁾ 오끼나와에서 門中の 호칭이 文獻에 나타난 것은 1872년부터였던 것이다.

한편, 韓國의 어느 곳이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門中組織의 형성시기는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그 機能이 強化된 시기는 늦어도 刊行本(筆寫本이 아닌)의 族譜를 낸 1562년 이후가 될 것이다.¹⁵⁾ 이렇게 보면 오끼나와의 門中呼稱은 한국보다 훨씬 늦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族譜가 刊行되었고 門中이 형성되었던 時代의 社會的 狀況은 오끼나와의 그것과 同一했던 것이다.¹⁶⁾

韓國에 있어서의 門中形成과 族譜의 刊行은 이들의 階級意識과, 같은 父系血緣集團內에서도 다른 分枝와 구별하려는 일종의 身分的 優越意識과 큰 관련이 있다. 이것은 오끼나와의 경우도 상기한 바와 같이 사정은 동일하였다. 오끼나와가 한국과 여러 가지 文化的 交流를 하여 왔고, 또 한국문화를 숭배하였고, 門中制度의 유사성 등을 들어 한국의 門中制度의 도입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것은 論外로 하고 다음 장에서 門中の 構造와 機能을 中心으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피기로 한다.

14) 崔在錫, 前掲誌, p.61.

15) 金斗憲, “朝鮮家族制度研究”, 1949, 서울, p.26 崔在錫, 前掲誌에서 再引用.

16) 渡口眞精, “系圖と門中”, 《沖繩文化》25, 1967

IV. 濟州島와 오끼나와의 門中の 比較

韓國에 있어서의 親族組織의 特色은 父系血緣組織 및 그 集團의 存在, 그리고 長男繼承의 制度라고 할 수 있다. 우선 父系血緣組織에는 堂內와 門中이라는 두개의 集團으로 나누어진다. 堂內는 4代祖인 高祖를 共同始祖로 하는 有服親의 親族團體로서 家族이 확대된 單位라고 볼 수 있다. 한편 門中은 5代祖 이상 소급된 共通의 先祖에서 유래하는 父系血緣團體로서 本貫과 姓을 共有하고, 그 歷史는 대개 4~5백년이며, 數千人에 이르는 構成員을 가지고 있다. 本貫은 明確한 族外婚의 單位가 되고 있다. 또 門中은 始祖의 祭集團으로서 構成員이 모여 年一回의 祭를 행하고, 共同財産을 共有하여 門中祭祀와 門中墓의 유지 관리에 사용한다. 이 財産은 各 門中成員의 分擔과 부유한 成員의 기부금으로 이루어진다.

門中에는 새로운 分枝가 형성되므로 한 門中에는 다시 이보다 작은 門中이 여럿 있게 된다. 이것을 派라고 하며 父系血緣組織 전체에서 보면 堂內와 門中の 中間의 位相을 하고 있다. 그러난 派도 지역에 따라서 門中과 같이 獨自的인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지역의 이름을 붙여 ××門中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宗家(本家)는 祖上의 山 具顯者로서 존중되어 宗家가 쇠약하고 무세력하더라도 祖上의 位牌는 本家에 安置되며 이에 대한 祭祀도 宗家에서 행해진다. 또 宗家에 家系를 繼承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는 次男의 長男을 맞아 相續시킨다. 이렇게 宗家가 門中の 支持를 받고 그 중심이 되어 權威를 가지고 있지만, 그 權威는 宗教的·形式的이며, 실제적·정치적 權威는 다른 分家에 있는 경우가 있다.

한국에 있어서 父系血緣集團의 最大의 범주는 門中이며, 最少는 家族이다. 이 家族의 수준에서의 특색은 전술한 바와 같이 長男에 의한 繼承이다. 즉 長男에서 長男이라고 하는 線이 構造的으로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長男이 父, 祖父, 그리고 父系의 先祖祭祀의 司祭와 責任을 지게 되어

있고, 이를 위해서는 家族이 살고 있는 家는 父의 다음에 長男이 거주한다. 次男 이하의 男子는 結婚하면 分家하여 새로운 家를 創立하고, 女子가 결혼하면 모두 男便의 家族成員이 된다. 分家の 경우 二·三男은 長男보다 적게 받는 것이 보통이며, 門中內에서의 分家間의 序列은 현저하지 않다.

이상과 같이 대략 韓國에 있어서의 門中組織과 그 기능을 살펴 보았다. 그런데 이것은 오끼나와 本土의 경우에도 同一 내지 유사한 것으로 고찰되고 있다.¹⁷⁾ 다만 이러한 韓國의 門中과 오끼나와 本土의 共通의 性格과는 달리 同一 門中內에서 通婚하는 門中도 있으며, 또 經濟的 活動을 중시하여 非血緣者의 加入을 인정하며 構成單位가 個人이 아니라 家人 門中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韓國門中과 共通의인 性格이 있는 경우는 특히 예전의 士族인 경우가 농후하고, 일반 農村에는 도대체 門中이라는 것이 社會組織으로서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는지 의심할 정도라고 한다.¹⁸⁾ 士族의 경우에는 오끼나와의 모든 社會의 上層으로 특정의 役割을 가진 集團의 成員權의 指標로서 일반 庶民과 자신들을 구별하는 의미에서 기능이 있었으나, 일반 村民의 경우에는 門中에 의하여 특히 서로를 구별할 필요는 거의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와 같이 그 成員權이 族外婚의 指標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父系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機能 - 父系에 의한 그룹의 구별 - 은 오끼나와에서는 전혀 없는 것이다. 물론 村內婚(인접부락까지 포함한 同一地域內)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같은 門中成員 여부에 관계없이 婚姻關係가 錯綜함으로써 同一門中の 成員으로서의 結合度는 항상 약할 수밖에 없다. 즉 同一門中の 再從兄弟·再從姉妹와의 관계보다도 門中을 달리하는 妻의 兩親·兄弟姉妹와의 관계쪽이 강하게 될 수 있고, 또 同一門中에 있어서 등거리의 血緣關係에 있는 者도 한 쪽이 婚姻關係를 갖고 있으면 다른 쪽에 비해 훨씬 친밀하게 된다.

同一門中內에서 血緣關係의 遠近에 의한 차이에 더하여, 婚姻에 의한 親疎의 차이가 교차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同一門中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17) 崔在錫, 前掲誌, pp.57~58.

18) 中根千枝, "沖繩·本土·中國·朝鮮の同族·門中の比較", 前掲書, p.290.

祖上이 墓를 같이 했다는지 系圖에 의하여 血緣關係를 立證하는 것 외의 다른 의미는 없게 된다.

한 門中成員 모두가 하나의 門中墓에 매장된다고 하는 것은 오끼나와 전체로 볼 때는 例外的인 것이다. 일반 農民들 사이에는 親·兄弟(그 配偶者, 未婚의 子女를 포함) 범위에 한해서 同一의 墓에 놓게 되는 것이 고작이다. 하나의 門中으로서 편성되는 成員이라도 실제의 機能集團은 이 墓의 경우와 같이 극히 좁은 범위에서 設定되는 것이다. 門中成員 全員이 모여 祭祀를 행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일반 農民에 있어서는 儀禮의으로도 大集團을 구성하는 門中の 單位는 社會組織으로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¹⁹⁾

이렇게 취약한 社會集團이었으나 특히 발달했던 門中에 焦點을 맞추어 보면, 하나의 特色있는 構造를 찾아 볼 수 있다. 즉 오끼나와에 있어서의 門中이라는 것은 「本家を 중심으로 하는 一族의 團體」라는 것이다. 따라서 韓國의 門中이 姓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特色인 데 대하여, 오끼나와에서는 姓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고, 몇개의 다른 姓들이 同一門中을 형성하고 있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중요한 것은 「屋號」이고, 이 屋號에 의하여 門中の 本分家關係가 식별된다는 것이다.²⁰⁾

總本家は 一門의 中心으로서의 權威를 갖고 있으나, 그것은 宗教的·形式的인 것으로 실제상의 政治的 權威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실제로 政治的인 權威를 가진 者를 「우후야(大屋)」라고 하고 宗教的·形式的 權威者인 門中頭를 「니-야(根屋)」라고 불리운다. 그러나 門中頭가 실제상 無力하더라도 門中の 祭祀는 반드시 이 門中頭의 家에서 행해진다. 門中은 니-야를 最高權威者로 하여 그 밑에 2인의 補佐役(베-꾸)을 두고, 이 3인이 門中の 통제를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베-꾸 중의 한 사람이 우후야인 경우가 많다. 門中の 일은 우선 이 3인이 協議하며, 중요한 것은 門中内の 長老의 의견을 듣고, 특히 중요한 것은 門中總會를 열어 결정한다. 이 점은 한국의 門中會와 유사하다.

19) 中根千枝, 前掲書, p.291.

20) 渡邊萬壽太郎, 1947, pp.384~385.

家族의 類型은 基本家族 내지는 直系家族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오끼나와에서는 既婚의 兄弟가 同一한 가옥에 거주한다는 慣習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기혼의 兄弟는 生活共同體나 財産共有體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日本 本土와 같고, 또 韓國과도 유사하다. 그러나 漢人社會에서는 父와 子는 물론, 兄弟도 結婚 후에도 사정이 허하는 한 居住를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의 家族單位를 구성하는 것을 전통적인 理想으로 삼아 왔다. 또 어떤 사정으로 居住가 분리된 경우에도 共有의 土地, 財産을 계속 가져 「同居同財」라고 부르는 家族單位를 유지했던 경우가 적지 않았다. 즉 5~6世代에 걸친 父系血緣으로 맺어진 近親의 男子를 골격으로 한 機能이 높은 集團이 形成되고 유지되는 것이 特色이었다.

이에 대하여 오끼나와의 경우 이런 土地나 財産을 共有하는 기혼의 男子로 形成되는 集團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오끼나와는 大家族은 아니고, 거의 基本家族으로 구성되어 있다. 年老한 兩親은 長男의 家에 同居하거나, 또 兩親이 살고 있는 家에 長男이 妻와 함께 同居하고 있는데, 이것은 日本 本土의 「家」와 共通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²¹⁾ 이와 같이 漢人社會와 비교하여 보면, 오끼나와에서는 門中内の 各家의 獨立性이 훨씬 높고, 本土만큼은 못해도 家 또는 「야시끼(屋敷)」라고 하는 居住의 要素가 대개 社會組織의 形成·維持에 스며있음을 알 수가 있다.

門中 속에도 「모도지(もとじ)」라고 불리는 家의 存續이 특히 존중되고, 長男의 地位가 항상 優越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家」의 概念이 나타난다. 門中 전체의 「모도지」인 경우, 더욱이 門中内の 分枝인 「××야(や)」라고 부르는 「모도지」인 경우로서 아들이 없을 때에는 그 家長의 弟의 長男을 養子로 맞이한다(그 때문에 그 弟의 家는 次男에 의해 이어지고, 또 次三男이 없는 경우에는 後繼者가 없게 되는 일까지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次三男의 家는 長男의 家에 대하여 從屬的인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런데, 日本 本土에서는 本·分家를 문제삼지 않고 어떠한 家라고 하더라도 그 長男이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지방에 따라서는 長男優先이 없

21) 中根千枝, 前掲書, p.293.

는 곳도 있다.), 兄의 家에 아들이 없다고 하여 弟가 自己의 家의 後繼者인 長男을 兄의 家의 養子로 한다고 하는 일은 없었다. 本土의 겨우, 오끼나와에 비해 各家의 獨立性이 한층 높은 것이다. 따라서 家의 後繼者로서의 養子를 一族에서 맞아들여야만 하는 問題는 생기지 않는다. 여기에 血緣의 讓步가 보여진다. 오끼나와에 있어서는 血緣, 그것도 父系血緣의 執着이 本土의 경우보다도 훨씬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養子는 이상적으로는 弟의 長男을, 그것이 여의치않으면 一門中에서 맞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 오끼나와에서는 일반적으로 강조되고, 또 실제로 이것을 立證하는 事例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報告에 따라서는 同一門中 이외의 成員을 養子로 하는 事例도 있고, 「異性不養」의 規制가 존재하지 않는 地方도 있다.²²⁾ 그렇다면 韓國에서 보는 것 처럼 養子는 반드시 同一한 父系血緣者에서 맞는다는 原則이 오끼나와에서는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門中」이라는 것도 韓國의 門中에 비교하여 同樣으로 父系血緣集團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의심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오끼나와의 門中이 韓國의 그것과 유사하다면, 그것은 首里의 舊上族에 의해 대표되는 門中の 理想型에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韓國의 門中과 비교할 때 本質上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濟州島는 陸地와는 달리 近處婚(部落內婚 내지 隣接部落婚)을 행하여, 따라서 部落內에 거주하는 母系親에 대해서는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어 父系親과 엄격히 구별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은 親族呼稱에도 나타나고 있고, 일상생활의 협동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近處婚의 慣行은 비옥한 土地를 소유할 수 없는 생활환경·경제상태와 결부됨으로써 門中組織이 形成·強化될 기반을 弱化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遠處婚이 행해진 陸地의 傳統社會에 있어서의 兩班子孫의 家族이나 親族의 경우와는 對照的인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즉 陸地의 傳統社會에 있어서는 대체로 同一部落이나 隣接部落에 父系親만이 다수 거주하여 父系親族組織이 형성되므로 門中組織이 발달하는 反面에 母系親이나 妻系親은 원거리에 거주하므로 이들과

22) 中根千枝, 前掲書, p.295.

의 親族的 紐帶關係는 強化되지 못하게 된다.²³⁾ 이것은 앞에서 본 오끼나와의 일반 農村의 경우와 유사한 맥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濟州島는 長男도 分家를 하며, 相續도 兄弟間的 均分相續形態를 취한다. 따라서 陸地와는 달리 長男優待相續이 없고 長男(宗孫)爲主의 觀念이 미약하다. 일단 結婚하게 되면 次子 이하는 물론 長子라고 하더라도 조만간 分家하여 독립한 生計를 영위하는 經濟主體로 된다. 한 울타리 안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도 家計를 별도로 합은 물론 父子間的 所有·貸借關係가 명확히 계산되는 등 완전히 獨立한 民事關係에 있게 된다. 이 점은 오끼나와의 基本家族形態와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陸地의 同族集團에서는 宗孫을 존중하는 意識이 강하지만, 濟州島에서는 이에 대한 觀念이 희박하다. 同族內的 일을 처리하는 데 宗孫의 發言權이 그렇게 중시되거나 宗孫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도 뚜렷하지 않다. 그러나 家系繼承과 祭祀를 중시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는 長男長孫의 觀念이 나타난다. 宗孫이 아닌 傍系親 중에서 祭祀對象者의 4代孫이 生存하고 있는 경우에는 宗孫은 그 祭祀對象者의 6代孫 혹은 7代孫이 되더라도 계속하여 忌祭祀를 奉行해야 한다. 또 祭祀를 지낼 때 行列이나 나이가 높은 同族員이 있어도 初獻은 언제나 宗孫이 담당하고 있다.

陸地에서의 同族集團에서는 始祖로부터의 世代數를 명백히 하고, 同族內部の 序列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行列을 사용하여 이것을 日常生活의 行爲規範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러한 行列은 族譜를 같이 하는 한, 전국적인 범위에까지도 통일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에는 行列은 族譜에만 나타나 있고 실제로는 다른 이름을 사용하거나, 兄弟 또는 4寸의 범위에서 行列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陸地의 堂內는 祭祀(忌祭祀)를 같이 모실 뿐만 아니라 吉凶事의 協助와 日常生活의 親和度에 있어서 강한 結合性을 보여, 하나의 집단(家)이라는 意識이 두드러지지만²⁴⁾, 제주도의 경우 그 強度가 약한 것이 사실이다. 堂

23) 崔在錫, “濟州島의 部落內婚과 親族組織” 《人文論集》 第22輯, 고려대, 1977, p.71.

24) 崔在錫, “濟州島의 親族組織”, 1984, p.165.

内の 結合性이 약한 것은 部落을 단위로 하는 同族結合의 경우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따라서 陸地의 同族部落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강한 集團性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集團的 行動은 墓祭(陰 3月)時에는 일시적으로 顯在化하여 나타난다. 이와 같이 同族의 結合이 약하므로 陸地의 同族部落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門中이나 宗中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養子制度에 있어서 陸地 農村과 두드러진 차이는 養親(父)의 身分에서 나타난다. 陸地에서는 未婚男子는 生前·死後에 관계없이 養子를 들 수 없음에 대하여²⁵⁾ 제주도에서는 未婚男子도 死後에 있어서는 死婚의 절차를 밟고 養父가 될 수 있다. 또 陸地에서는 養父의 生前에 이루어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는 養父의 死後에 행해지는 것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入養의 目的은 祭祀奉行과 家系繼承에 있으며 養父母의 老後扶養에 있지 않다. 親父와 養父의 關係는 四寸인 경우도 더러 있으나, 대체로 親兄弟間에 入養이 행해진다. 또 長男집에 養子를 보낼 때는 弟의 長男을, 弟에게 養子를 보낼 때는 長男의 次男을 入養시키고 있는 것은 長男爲主思想의 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²⁶⁾

V. 結 語

오끼나와의 門中制度가 韓國으로부터의 文化的 影響에 의하여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影響권은 예전의 舊土族에게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을 뿐, 一般 農民에게는 그것이 변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위에 든 문헌들 중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韓國과 같은 文化圈인 濟州島의 경우에도 韓國 門中の 典型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다. 韓國門中の 特色은 앞서서도 본 바와 같이 父系血緣組織 및 그 集團의 存在, 그리고 長男繼承의 制度라고 할 수가 있다. 우선, 父系血緣組織에 대해서는 오끼나와의 一般 農民에게는 異姓들이 섞여 있음

25) 崔在錫, 前掲書, p.298.

26) 崔在錫, 前掲書, p.299.

으로써 同姓集團이 완화된 형태로 변용되어 있어서 日本 本土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長男繼承의 制度에 관한 한 오끼나와가 濟州島보다도 더 韓國門中制度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濟州島는 韓國과 同一한 文化圈임에도 불구하고 近處婚을 취함으로써 傳統的인 門中制度를 弱화시켰고, 대신 母系親이나 妻系親과 한층 밀접한 관계를 갖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더욱이 相續制度에 있어서도 均分相續形態를 취함으로써 長男爲主의 觀念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이것은 또 傳統的인 門中制度를 弱화시키는 데에 一助를 한 셈이 된다.

오끼나와에서의 門中組織은 일정한 歷史的 條件 아래서 형성되어, 그 社會全體에 자연스럽게 社會組織으로 定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오끼나와의 親族組織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雙系的인(父方이 더 強調되는) 血緣關係의 機能과 各戶의 獨立性이라고 보고 있다.²⁷⁾ 즉 이 두개의 要素는 어느 곳의 社會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이나, 社會가 組織化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이 더 강조되는 것이다. 예컨대, 中國이나 韓國에는 父系血緣이, 日本 本土에서는 「家」의 繼承을 기반으로 하는 本·分家關係에 의한 組織이 우선되는 데 대하여, 오끼나와에서는 어느 쪽을 우선시키지 않고, 兩者가 각기 발전할 수 있는 두개의 要素를 취하여 彈力的으로 대처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유타」 등의 組織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가지 宗教儀禮의 司祭, 參加하는 일들이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濟州島의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으로서, 父系血緣集團을 指向하면서도 母系親과 妻系親의 기능이 존중되고, 長子의 職分은 沒却되지 않으면서 각 兄弟의 獨立性이 철저히 유지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점은 오늘날 産業社會에 있어서도 잘 적응될 수 있는 制度로서 濟州島의 자연·경제적 환경을 잘 극복한 지혜라고 할 것이다.

27) 中根千枝, 前掲書, p.295.